

“광주다움 통합돌봄, 내년 국가 돌봄체계 모범될 것”

박미정 의원 주관 정책토론회서 의료돌봄 체계 구축 논의
지역 약사·한의사 참여...의료결함모델 고도화 방향 모색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의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박미정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동구2) 주관으로 지난 19일 의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의료돌봄의 역할과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기 마련됐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약사회, 광주시한의사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약사·한의사·간호사 등 지역 의료자의 참여 방안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선경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의 다제약물 복용 문제는 응급실 방문과 입원,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라며 “약물 관련 응급실 방문의 76% 이상이 예방 가능했다”는 점에서 약사의 통합약물관리는 돌봄의 핵심 인프라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는 “한의 방문진료는 노쇠, 만성통증, 근감소증, 다제약물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의료취약지역과 재가 노인을 위한 한의약 기반 의료돌봄 모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명 광주시 통합돌봄팀장, 최의권 광주시한의사회장,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 윤영애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간호부장, 이명희 요양보호사가 참여해, 의료돌봄 강화를 위한 지역 의료자원 연계와 제도 개선 방안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9일 광주시의회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의료돌봄의 역할과 제도적 과제를 점검했다.

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박미정 의원은 “돌봄은 의

사·간호 등 지역 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의료돌봄 체계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주가 선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2026년 국가 돌봄체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의료돌봄 필수화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자치경찰, 새해 현장중심 치안 강화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2025 자치경찰 성과공유회’를 열어 올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며 2026년 현장 중심 치안 강화를 다짐했다. 행사에는 전남도자치경찰위원, 정책자문단, 시·군과 경찰서, 전남경찰청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 사무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과 경찰청 각 6개 기관, 유공 경찰공무원 5명을 표창해 현장 실무자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또 최우수 활동 기관으로 선정된 순천경찰서의 ‘주민 참여형 순찰 활동’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한 해의 활동을 되짚고, 2026년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인사, 감사 등 5개 분임별 회의를 열어 2026년 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실무자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2025 자치경찰 성과공유회’를 열어 올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며 2026년 현장 중심 치안 강화를 다짐했다.

실질적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도 실질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시·군과 경찰, 위원회 간 협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시·군과 경찰서, 전남경찰청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도민 곁에 늘 함께하는 자치경찰

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새해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를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녹색에너지연구원, 시책평가 포상금 전액기부

목포 이로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취약계층 장학금 활용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황규철)은 최근 ‘2025년 전남도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받은 포상금 (180만원) 전액을 목포시 이로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목포시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며, 지역 내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황규철 원장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받은 포상금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액 기부를 결정했다”며 “청렴과 윤리를 바탕으로 전남도민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



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이로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감사드립니다”며 “기부금은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최명석 신안대우병원장, 1500만원 기부

‘김우중 의료인상’ 상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달

최명석 신안대우병원장은 최근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가운데 15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신안군에 기탁했다. 최명석 병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18년간 도서지역에서 24시간 진료 체계를 구축하며, 섬 주민의 생명을 지켜 온 헌신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대우재단으로부터 ‘제5회 김우중 의료인상’을 수상했다. 최 병원장은 이번 수상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신안군 북부권 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권을 지키기 위한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인 ‘섬과 삶을 잇는 희망의 배 매입 (건조)’ 사업에 지정 기부했다. ‘섬과 삶을 잇는 희망의 배 매입 (건조)’ 사업은 운항 중단 예정인 북부권 노후 여객선을 300t급 신조선으로 대체하기 위해 총 50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안군의 제1호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이다. 군은 이 기부금이 섬 주민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하는데



최명석 신안대우병원장은 최근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가운데 15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신안군에 기탁했다.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섬 주민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의료인의 진심이 담긴 숭고한 기부다”며

“이 뜻이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로 확산되어 섬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2123@gwangnam.co.kr

정우회, 2025 정기총회·송년의 밤 개최

소외계층 지원 방안 논의

정우회는 최근 광주 남구 백운동 한 식당에서 2025 정기총회·송년의 밤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재오 정우회장, 정진욱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용집 남구청장, 출마예정자, 조승환 서구청장, 출마예정자 등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년도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05년 창립된 정우회는 매월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가정에게 무료 음식 제공, 쌀



배달, 도배장반 교체, 연탄배달, 김장김치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재오 회장은 “앞으로도 힘이 되는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 (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 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

적 사정·이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플래너지도사 (자격반)=시·군·구 자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ონსე (음력 11월3일)

48년생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길게 보자
60년생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라
72년생 아이디어로 덕을 보는 날
84년생 금전 현재 지급할수 없으니 미루자
96년생 마음 있었던 연인과 데이트 하는 날
51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
63년생 문서에 따라오는 수표를 주의
75년생 직장 변동수 조심조심할 필요
87년생 방향 설정을 잘 해야만 좋은 결과
99년생 지인으로 인한 관제 구설수 주의
54년생 금전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66년생 제3자 권하는 사업 천천히 생각
78년생 친한 사이라도 비밀을 발설치 마라
90년생 마음 격정 가족에게 털어놓아라
57년생 함께하는 일이 돈구름과 같습니
69년생 바쁘지만 할 뿐이지 실속은 없는 날
81년생 부부정이 좋아지고 금전 들어 온다
93년생 만남의 이야기가 구제화 된다

49년생 새 주인이 생기고 성가신 일 해결 될 것
61년생 불화의 징조가 보이니 주의
73년생 바야흐로 재물이 올 때가 이르렀다
85년생 금전 융통 주의하도록 하자
97년생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자
52년생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
64년생 거래 때문에 순간적으로 고통 따른다
76년생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감각 필요
88년생 훗날 수확을 위한 씨가 될 것
55년생 문서잡고 처음은 좋으나 불안한 마음
67년생 자녀일 미래를 버리면 해결 될 것
79년생 일 좀 더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하자
91년생 이성에 마음 쓰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
58년생 지인의 도움으로 낭패를 면하게 된다
70년생 자녀일 욕심이 앞서면 실패 하기 쉽다
82년생 거래처 다름이 관제 수로 발전
94년생 세밀한 지출계획을 세워서 어려움 극복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50년생 도움으로 문에서 기쁨이 올 때
62년생 부동산 거래 서두르면 손해본다
74년생 지인덕으로 잘 되어가는 집주보인다
86년생 기왕이면 부동산 투자를 선택
98년생 친구는 귀하보다 한 수 위
53년생 배우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자
65년생 받는 문서 주의
77년생 금전보다 부동산을 더 중시하라
89년생 사람들과 잘 다통을 주의
56년생 좋은 날이니 모든 일에 기쁨을 만끽
68년생 지인의 빛 독촉으로 상심한다
80년생 문서는 들어오지만 금전 조금나간다
92년생 원래 가졌던 마음으로 자격취득하라
59년생 돈 주머니를 묶고 아끼는 것이 상책
71년생 문서 지키는 것이 필요 하는 날
83년생 작은 것을 얻거든 탐욕 하지마라
95년생 귀하는 이미 사랑이 시작됐다